

파라다이스

김명원 (68 년)

점심 손님들이 다 빠져나간 오후의 식당은 한가했다.

오늘은 노상 먹는 버리토(Burrito)* 대신 엔칠라다(Enchilada) 를 시켰다.
함께 나온 토띠야 (Tortilla) 칩을 과카몰레(Guacamole)에 찍어 먹으며
느긋하게 오후를 즐기고 있는데 3 인조 그룹이 내 앞 테이블에 자리를
잡는다.

나의 맞은 편에 앉은 열 대 여섯이나 돼 보이는 계집애의 티셔츠 가슴에
“Another Day in Paradise”라 쓰여있다.

그 애 옆으로 꼴렁하게 생긴 중년 남자가 궁뎅이를 디밀고 앉았다.

“ I don't want to sit next to you !” 계집애가 껍 쏘았다.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가 반대편에 앉으며 무어라 계집애를 타이른다.

남자는 계집애의 아빠인 모양.

아마도 할머니가 이혼한 아들과 그의 딸을 데리고 식당엘 온 것이리라.
파라다이스를 꿈꾸는 애치고는 너무 차갑다.

저래가지고서야 파라다이스 근처에나 갈 수 있겠나.

아빠가 무얼 그리 잘못했길래 다 큰 계집애가 저렇게 싸가지 없이 굴까.
애들을 Spoil 시켜 키워서 그런지 요즘 틴에이저들은 아무리 잘 해 줘도
만족을 못 한단다.

그렇다면 자기가 파라다이스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틴에이저들은 얼마나
될까

정신과 응급실에 근무하면서 앞 길이 창창한 젊은 애들이 음독을 하거나
손목을 칼로 긁고 실려 오는 걸 노상 보아왔다.

그럴 때 마다 피부 팽팽하고 관절 노골노골한 그 좋은 청춘을

그리도 쉽사리 내팽겨치려 하나 하고 딱하면서도 아까운 마음이 앞 설
때가 많았다.

버릴 청춘이면 내게나 주지.

젊음이 부럽기는 하지만 사실 청춘이라고 다 그렇게 좋기만 한 것은 아닐
것이다.

흘러가 버린 청춘과 함께 쓸려 간 시험지옥, 애증의 질곡과 고질적 용돈
결핍증을 기억 한다면 말이다.

약혼자의 사진을 보여 주면서 “This is my future x-wife” 라고 하던
남자 간호사의 말이 생각난다.

알 수 없는 장래, 온갖 유혹의 늪, 넘어야 할 시련의 산.

그나마 요즘 젊은이들은 옛날처럼 턱없이 낙관적이지만은 앓은 모양이다.
파라다이스로 가는 길은 지옥에서 부터 시작한다는 단테의 경고를
알고있는 것 같다.

계집애는 내가 먹는 것과 똑 같은 걸 먹고 있었다.

엔칠라다가 이 식당의 자랑인 모양이다.

잘 해보려고 애쓰는 아빠에게 줄곧 쌀쌀 맞게 굴던 애가 나와 눈이
마주치자 썩웃 웃는다.

과카몰레를 듬뿍 얹은 칩을 입으로 가져가다 말고.

천사의 웃음이다.

내가 먹는 걸 보고 자기도 똑 같은 걸 시킨 모양이지?

나도 마주 웃어 주었다.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저렇게 귀여운 애의 가슴에 못을 박고
이혼을 했을까.

어쨌거나 저런 티없는 웃음을 웃을 수 있는 애라면 파라다이스는 무사
통과다.

늦잠 자고 일어나 Youtube 도 들여다 보고 그림도 좀 그리다가 늦은
점심을 먹고나서는 화방에나 들러 볼 참이었다.

잠 깨어 멍기적 거리다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을 때 먹는다.
시간에 쫓기어 허둥대지 않아도 된다는 것 만으로도 얼마나 사람의 품위가
달라지는가.

나물 밥에 맹물 마시고(飯疎食飲水) 팔베개 베고 누우니(曲肱而枕之)

어찌고 하며 그게 낙이라는 공자님의 말씀대로라면 나야 말로

파라다이스를 살고 있는 거다.

더구나 공자님 보다는 더 잘 먹으면 잘 먹었지 베개도 쪽팔리게스리 팔
베개가 아니고 거위 털 베개니 파라다이스도 일등 칸이다

모두가 웃는 소리가 들린다.

아빠가 무얼 어떻게 했는지 아빠 팔뚝을 쿵쿵 때려가며 계집애도 할머니도
모두 깔깔 웃고 있다.

웃는 모습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다.
미간에 서려있던 암상이 말끔히 걷힌 건 물론 장난치며 눈을 흘기는
계집애의 표정이 고풍적이기 까지 하다.
엄마가 재를 닦았을까? 엄마가 바람을 피웠나 보다.
아빠도 뭐 행색을 보아하니 사람만 좋았지 별로 내 보일 것 없는 위인인 것
같기는 하지만.
웃는 모습이 파라다이스에서 온 애 같다.
그래, 오늘은 네 소원대로 'Another Day in Paradise'다.

파라다이스가 뭐 별 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저렇게 웃고 장난치고 하는 순간을 가질 수 있으면 그게
파라다이스지.
아무리 험한 시련의 산중이라해도 잠깐 발 담그고 쉬어 갈 시냇물 한
줄기쯤은 있는 거 아니겠나.
지옥이 있어야 파라다이스가 더 값지다.
장마 비 그친 뒤의 질푸른 하늘 빛.
당장 갈라 설듯이 다툰 날 밤의 폭죽 터지는 섹스.
그것도 쌍폭죽.
칸츄리 싱어 Johnny Cash 는 파라다이스를 “ Coffee in the morning...,
with her.”라고 했다.
맞다.
파라다이스는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외출 할 때마다 문간에 서서 손을 흔들어주는 아내의 모습은 지금도
새색시 때 모습 그대로다.
세월이 즐고있는 시골 Cafe 에서의 차 한잔.
어렴풋이 잠결에 들리는 먼 기적소리...
'콧등에 내려 앉은 눈송이'가 My favorite thing 이라는 노래 가사처럼
나에겐 이런 것들이 문득 문득 닥아오는 My favorite paradise 의
순간들이다.
며칠 전에 아내가 동창 모임에 다녀오더니 동창생 하나가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다니며 괴롭힌단다.
그들은 교회 안에까지 빛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단다.
경찰도 FBI 도 아무 도움을 주지 못 하더라.

방의 창문들을 다 은박지로 발라서 빛이 못 들어오게 막아 놓았단다.
그날 그 친구는 틈만 나면 천당 이야기로 동창들을 귀찮게 굴더란다.
많은 정신 질환 환자들이 종교에 그릇 집착해서 천당에 대한 망상에
매달린다.

잠자코 듣고만 있더니

“아무리 천당이 좋다구 해두 지금 우리가 살구있는 세상보다 더 좋은
천당은 없어, 애.” 라고 말한 사람은

바로 목사부인이라는 동창이었다.

사모의 동상이몽(同床異夢)을 목사님이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얼마나 성찰 깊은 깨달음인가.

갖은 간난신고(艱難辛苦)도 다 지나고 나면 웃으며 옛말하는 추억이 되는
게 인생이다.

하나같이 다 거룩한 사람들만 모여서 하릴없이 서성이고 있을 하늘의
천당은 얼마나 심심하고 하품나게 지루할까.

거기에 비하면 달콤한 유혹과 과란 만장한 드라마로 가득찬 이 세상은
얼마나 스틸 넘치고 재미 쏠쏠한 천당인가.

잠깐 정신을 놓고 있다가 보니 앞 테이블이 텅 비어있다.

물끄러미 계집애가 앉아 있던 자리를 바라 보고있는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내게 검지 손가락을 가로 젓는 계집애의 환영이 스친다.

하마터면 벗어 들고 있던 안경을 과카몰레에 찍어 먹을 뻔 했다.

멕시코 음식

캘리포니아에서는 동부에서 살 때 이태리 음식을 먹던 만큼이나 자주
멕시코 음식을 먹는다.

버리또 : 폭 삶은 콩과 쌀밥에 토마토, 양파, 고추를 다져서 만든
썬소스(Salsa:쌈사)를 얹고 야채와 고기 등을 넣어 옥수수 전병(또띠야)에

싸서 먹는다. 속을 많이 넣으면 애기 베개 만하게 커진다. 캘리포니아에 처음 왔을 때 만 해도 혼자서 다 먹었는데 이제는 절반도 못 먹는다.

엔칠라다 : 버리또와 비슷하지만 꼬마 김밥처럼 작고 양 옆이 터져있다. 치즈를 얹어 익혀낸다.

또띠야: 옥수수나 밀가루로 만든 둥그런 전병.
이것을 작게 부채꼴로 잘라서 기름에 튀긴 칩을 간식으로 먹는다.
흔스러운 음식이지만 한번 먹기 시작하면 자꾸 먹게 된다.

과카몰레: 잘 익은 아보카도를 으개서 토마토, 레몬즙, 후추 등을 넣어 버무린 것. 또띠야 칩을 찍어 먹는다. 색깔은 예쁜데 볼품은 없다. 맛은 있다.